**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어려운 세계의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동역자님들께 문안과 평강을 전합니다.

이곳은 주말 외출금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환자 발생 세계순위 10위권 안에 있는데, 2월 행사 때문에 도매 시장에 재료 수급을 알아보러 갔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어서 여기는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첫 기도편지는 기도 제목으로 대신합니다.

 **기도제목**

1.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새롭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거듭난 감격이 있는 생활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개로 영적 민감성 회복을 간구합니다.
2. 주께 돌아와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잊지 않기를(갈라디아의 교제하는 H부인 가정, U부인과 딸 가정, N가정, A…… 그리고 한국의 막내 여동생 가정과 넷째 여동생 가정, 조카 김세민, 친구와 태신자들……)
3. 온라인, 비대면의 교제와 사역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4. 이곳 TV의 한 프로그램이 문화원에 와서 2월 중순에 ‘김치’ 촬영을 하고 3월 중순 방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선한 도구가 되도록
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병상에 계신 모친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강건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셋째 여동생이 모친을 섬기는 손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넷째 여동생에게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6. 새벽에 더 심한 비염으로 고생 중이고, 치과 치료를 받을 때까지 잇몸과 이가 견디기를, 외부 활동이 적절치 않은 상황에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어 심적인 건강 유지를 구합니다.
7. 이 세대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동역자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강 가운데 지키시기를 의탁합니다.

 2021. 1. 23. 김에스더 드림